

韓國의 社會變化와 高等教育

鄭 宇 鉉
(高麗大 教授)

I. 問題의 提起

最近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經濟的 文化的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社會變化를 체험하고 있다. 이미 脫工業化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產業構造는 高級人力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人材의 양성이 보다 중요한 社會問題로 부각되고 있다. 平等思想의 보급과 더불어 大衆의 上向的 社會流動에의 熱望은 많은 젊은이들을 上級 段階의 學校로 進學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大學은 그 보급과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大學은 知的 엘리트의 양성이라는 전통적인 요청과 함께 다른 한 면으로는 날로 늘어가는 大學人口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大學機能의 핵심을 찾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다.

産業社會의 특징이 그렇듯이 이제 大學은 낡은 교육내용과 타성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가 없게 되었다. 大學은 大衆의 다양한 요구를 위한 教育內容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신선하고 有用한 知識과 技術을 提供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大學은 新教育制度로서의 大學 도입의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大學 發達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社會的 條件으로 인하여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낡은 이념

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大學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大學의 발달과정을 알아야 하고, 그 속에서 大學이념을 새로이 定立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社會變化를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大學의 모습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本稿에서는 紙面關係로 우리나라 大學의 발달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本論을 전개한다.

II. 社會變化의 추세와 現實

大學에 대한 이념의 多樣化와 大學의 실상변화는 時代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추세이고 이러한 추세는 大學을 둘러싸고 있는 社會一般의 變化와 이러한 大學自體의 變化가 상호영향을 입히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社會變化的 要因과 大學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현상 몇가지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外的要因으로서의 社會變化의 추세

현대를 가리켜 혁명적 변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는 物質的이고도 精神的인 면에서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의 가치관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서 교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教育에 대

한 이념의 變化, 교육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方法的 變化 및 교육적 가치선택의 變化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이 만일 이러한 變化의 초점을 감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방치된다면, 교육은 사회와 유리되고, 이로써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오직 형식만 남을 뿐 내적으로는 가치를 상실한 존재가 될 것이다.

서구의 대학이 존재하여 온 것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공존되어 왔다는 데서 기인 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학도 이제 새로이 부가되는 사회변화의 초점을 명확히 포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선의 방안이 모색될 때 대학의 구실을 다 하게 되리라 본다. 이제 대학교육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사회변화의 몇가지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開放社會와 教育

우리나라는 100년전만 하더라도 양반계급과 상민계급이 있어 신분지위의 획득이 귀속적이였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주어진 신분에 대한 유지의 방책 또는 上位階級에 대한 지도성 개발에 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성취적으로 신분지위를 얻을 수 있는 개방사회가 되었고, 이로써 누구나 上向의 社會流動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어느 사람이건 간에 그가 가진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그 인정의 강도에 따라 바라는 지위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정의 尺度를 교육에서 구하게되어 교육이 보다 각광을 받게 되었다. 더우기 이와 같은 개방사회의 특성은 다시 민주이념의 실현을 동반하게 되었고 교육기회의 平等化 및 公平化라는 基本原理의 實踐을 要求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變化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교육문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① 향학열이 높아지고 따라서 취학인구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대중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② 고학력화현상이 일어나 次上級 大學校에의 進學 매력에 증가되어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으로의 向學정도가 높아졌고, ③ 경쟁의 원리가 보다 효율있게 작용함으로써 一流·二流學校의 출현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④ 이러한 諸要求가 부분적으로 充足됨으로써 교육기회의 계층적 또는 전통적 불평등을 야기시키게 되

었다. 따라서 근대사회에서는 대학자체가 갖는 전통적 가치관만으로는 생존키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社會流動方式的 變化에 따라 야기되는 大學教育에의 壓力은 전통적 대학관의 고수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다만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는 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2) 利益社會와 教育

古代的 社會에서는 社會構成의 體制가 家族을 單位로 한 공동체적 組織이었다. 그러기에 사회구성원 各者는 상호연계가 잘 이루어졌고, 上·下間의 우애와 질서, 그리고 일감의 共同的 처리등이 可能하였다. 이때에는 大學의 운영에 있어서도 학생과 교사, 또는 經營者와 被經營者사이에 긴밀한 유대감이 있었고, 共同意識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價值觀은 近代에 들어 급격한 變化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個人과 單位集團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個人的 身分의 地位가 부각되고, 各各의 신분에 따른 기능이 명료하게 區分되어짐으로써, 個人과 個人 그리고 조직과 조직들이 相互契約의 立場에 서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기능에 의해 맺어진 매다른 社會라는 비평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個人的 自律性, 專門化, 官僚體制, 世俗化, 實用性, 實力과 機能의 發揮가 크게 부각되어 社會構造를 보다 合理的으로 유대시켜 주는 原動力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契約社會의 體制下에서 大學은 이제 전통적 理念으로 내려오는 “學問의 殿堂”, “學問을 위한 學問” 등의 Slogan이 그 現實性을 잃게 되었다. 즉, 현대 사회가 보는 大學은 數 많은 社會組織中的 한 조직체로서, 여기서 教育이라는 사회적 機能을 맡고 있고, 이 기능이 他 社會組織員들에게 合當하다고 인정될 때 存在價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思考의 하나로 내세워지고 있는 理念이 “人力需要의 充足”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先進國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1970年代부터 高度經濟成長期를 맞이하여 產業構造에 커다란 變化를 체험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變化속에서 나타난 것이 高等教育人口에 대한 需要이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積極的 擴大策이 實踐되었다.

1979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고

등교육의 기회확대 및 질관리²⁾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高等專門人力의 必要供給量은 1991년에 전문기술직 61.30%, 行政管理職 56.23%, 事務職 2.79%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1979年度の 추정에서 볼 때, 고등 전문인력의 現供給能力은 不足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전의하기로는, ① 高等教育機關 入學定員이 擴大되어야 하겠고, ② 高等教育機會가 均等化되어야 하겠으며, ③ 高等專門人力에 대한 周期的인 需要推定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一聯의 研究는 計劃을 中心으로 하는 현대사회 特性의 한 產物이 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人力需要分析은 實效性있는 研究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大學이 人力需要의 充足에 예민하게 對應하여야 한다는 思考는 確實히 利益社會가 던져주는 特性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情報 및 知識資產社會와 教育

産業의 發達程度가 낮았던 時代에는 人間의 資產은 土地(land)가 第一의 所有物이었다. 그러던 것이 産業이 발달됨으로써 交換의 手段으로 쓰이는 돈이 資本으로 대두하였다. 그래서 資產을 所有하려면 土地보다는 돈을 갖기를 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最近에는 새로이 情報와 專門的 知識이 資產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공급원인 학교, 특히 大學은 새로운 자산의 출처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유산을 준비하려거든 교육을 시켜라”라든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格言 등은 현대식 자본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은 人間本性의 순화라는 人本主義의 立場으로 보다는 富획득의 수단으로 化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의 기능은 이제 상품적 가치가 있는 지식과 정보의 공급원이 되도록 강요받게 되었다. 대학교육의 내용이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면, 實用的 내용의 과목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와같은 資產的 가치를 크게 내세운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4) 平生教育理念의 伸張과 教育

현대사회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의 전달을 目的으로 하는 학교교육 특히, 대학의 중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이외의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되고 또 시켜야된다고 하는 소위 平生教育理念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여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교육의 모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과거에도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이의 모순점이 인식되어 왔지만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학교외에 다른 곳은 없었기에 교육은 학교에 독점되었고, 대학은 최고의 지위와 권위를 구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었고, 상아탑이라는 최대의 찬사를 대학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脫工業化時代에 들어서면서 교육은 학교이외의 여러기관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학교의 교육매체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가끔 전통적 학교보다도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교육을 제공받게 되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는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주었다. 여기에서 대학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질중의 하나인 변화에의 부적응성때문에 오히려 증대에 가졌던 권위와 위신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급속히 擴大되는 학생인구로 말미암아 質과 量의 불균형을 야기시켰고, 잡다한 學外文化의 영향으로 大學本然의 文化가 침해를 받게 되었으며 多樣한 학습의식과 다양한 교육적 기대로 대학의 원래적 기능신장이 不可能하게 되었다. 대학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학역시 다양한 교육활동을 일으켜야 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대학은 그 핵심적 기능을 잃게 되었다. 대학이 대학본연의 이념을 잃어가고 있다고 자신이 느끼면서도 변화되어 가는 사회의 여전속에서 그 理念을 새로이 찾지 못하는 비애를 스스로 알게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기에 대학은 다시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하나는 대학이 인간을 가르치는 終極적 究極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라는 독점적 의식에서 벗어나 社會의 教育化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5) 高度知識社會와 教育

과거에는 학문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어

학자들은 학문으로 그 全體性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학문은 전문화가 크게 이루어져 한없는 分化를 하였고, 따라서 같은分野의 학자들도 동료들의 연구결과를 모두 흡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것은 이해가 어려운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이와같이 학문의 細分化로 知識間의 상호유대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학문의 편견성이 증대되었으며 전반적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이 오히려 대학사회의 교육내용 구성에는 커다란 변화의 구실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있다. 즉, 이제부터의 대학은 인접영역과의 유대성이 보다 증시되어야 하겠고 細分化의 전문성 교육과 아울러 종합적인 일반성교육이 並行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 일환으로 統合科目이 권장되고, 부전공제 및 인접과목을 履修케 하기 위한 선택제의 확대제가 요청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時代的 현상으로 나타나는 학문의 細分化와 專門性教育의 증족도 이룩하도록 배려되어야 하기에 대학의 교육은 다양하여야 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학문의 발달과 더불어,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로써 국제적 학문의 교류, 대학간의 연구교류등 汎世界的이고 광역학문적인 대학 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6) 職業世界中心社會와 敎育

職業의 세계는 과거에 비하여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선 직업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산업혁명 당시 직업의 종류가 500여종이었던 것이 세계 제 2次大戰이 끝날 무렵에는 1萬餘種으로 區分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4~5萬餘種으로 구분되던 것이 1970년 가서는 10餘萬種으로 區分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직업종류의 증가현상은 과학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직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필연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時代는 누구나 다 한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대학은 학문연구의 최고학부로 자처하고 있을 때는 지났다는 것이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고 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학자의 직종은 이제 과잉생산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변

화되어야 한다. 대학과 産業體 사이에 不調和가 있다면 그것은 대학에서 가르친 학생의 자질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훈련된 人材의 자질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대학에 대한 신뢰가 감퇴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대학은 可能的 한 다양한 과정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학문의 연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업인 양성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방된 大學,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학으로 그 이념을 變化시켜야 하리라고 본다.

2. 大學自體의 變化

(1) 大學의 擴大

1945년에 이룩한 自主獨立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敎育에 대한 進學機會要求가 커지고 따라서 大學의 數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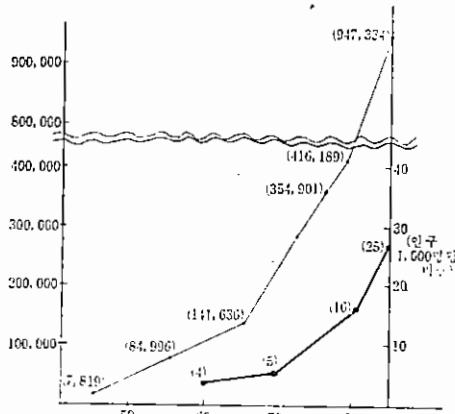
이를 高等教育人口數에서 볼 때, 1945년에 7,800여명이었던 것이 1960년에는 101,000여명, 1970년에는 178,000여명, 1980년에는 600,000여명 그리고 1980년에는 總高等教育在學生人口數가 947,338명에 達하고 있다. 이러한 增加추세를 우리나라 人口數의 1,000名當對比로 比較하여 본다면, <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0년에는 4名, 1970년에는 5.66名, 1980년에는 16.5名으로, 그리고 1982년에는 24.7名으로 急增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中에는 30%의 탈락자 適用學生도 포함되어 있지만 外形的 變化로 볼 때 急進的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敎育發展의 展望과 課題”에서 본다면, 1991년까지 高等教育人口數를 우리나라 總人口數 1,000名當 25.3名까지로 計測하였는데, <表-1>에서 제시하는 바와

<表-1> 高等教育人口의 增加 現況

	高等教育人口數	人口 1,000名當 學生數
1945년	7,819名	.
1960	101,041	4.04名
1966	164,803	.
1970	177,996	5.66
1975	238,719	.
1980	600,416	16.05
1982	947,338	24.72

※ 文敎統計연보 참조

〈도-1〉 고등교육인구의 증가



같은 추세에 의한다면 1985년경에는 이 계획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인구의 증가추세를 4년제 대학만으로 국한시켜 본다면 〈表-2〉와 같다.

〈表-2〉에서 볼 때, 1950년에 약 3만명, 1960년에는 약 10만명, 1970년에는 14만명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41만명이 되었고 2년후인 1982년에는 60만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인구 1,000명당 4년제 대학생의 비률로 본다면, 1950년에는 1명, 1960년에는 4명, 1970년에는 4.5명, 1980년에는 11명이었던 것이 1982년에는 17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생수와 더불어 대학원생수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에 약 13,000여명 1980년에 33,000여명, 1982년에 54,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특히 1982년 현재 대학원생수는 1950년대 4년제 대학생수의 약 2배가 되며, 1960년의 4년제 대학생수의 절반이 되고 있다. 대학원이學期間을 平均 2年으로 계산한다면, 1960년의 4년제 대학생수와 1982년의 대학원생수의 비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2)·大學教授數의 增加와 教育의 質

大學數의 增加, 그리고 大學學生數의 增加와 더불어 學生을 가르치는 大學教授의 數도 增加하

〈表-2〉 總人口에 대한 4年制 大學生의 比率 및 卒業者數

(단위 : 명)

	總人口數	大學生數	人口千名當學生數	卒業者數
1950년	20,167,000	29,218	1.0	—
1960	24,954,000	101,041	4.0	17,430
1970	31,435,000	140,450	4.5	22,684
1980	37,419,000	407,037	10.9	60,148
1982	38,317,000	661,125	17.3	135,150

※ 文教統計연보 참조.

〈表-3〉 大學院의 增加

	學:校數	學生數
1975년	82個數	13,870名
1980	121	33,939
1982	169	54,208

※ 文教統計연보 참조.

고 있다. 1950년에는 4년제 大學教授가 2,000여명이었는데, 1970년에는 7,800여명, 1980년에는 14,600여명이 되었고, 1982년에는 20,0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表-4〉에서 알 수 있듯이 學生數의 增加에 따른 教授數對學生數의 比率은 低下되고 있는데, 1950년에는 교수 1人當 14.2名의 學生을, 1960년에는 26.6名의 學生을, 1980년에는 27.9名의 學生을 가르치던 것이 1982년에는 32.8名의 學生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參考로 外國의 경우를 제시하면 〈表-5〉와 같다.

〈表-4〉 4年制 大學의 教授數의 增加 比率

(단위 : 명)

	教授數	學生數	教授人當擔當學生數
1950년	2,052	29,218	14.2
1960	3,803	101,041	26.6
1970	7,779	140,450	18.1
1980	14,610	407,037	27.9
1982	20,137	661,125	32.8

※ 文教統計연보 참조

이러한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大學教育은 實驗室의 準備나 教育內容에 充

〈表-5〉 各國의 教授 1人當 學生數

프랑스	20.2
서독	10.8
일본	19.2
영국	8.0
미국	16.6

※ OECD 자료에서 참조(1974)

實하기 以前에 教授의 絶대 數가 不足하고, 현재(1982)의 比率만 하더라도 약 10年前의 美國 比率의 2倍가 되고 있다.

따라서 現代의 教育은 大衆化 추세와 더불어 「엘리트」로서의 知的 보장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人爲的이라기 보다는 社會變化的 추세라고 보아 그 타개책을 現實속에서 發見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3) Mass化 되는 大學

大學의 數가 增加하고, 이에 따른 學生數의 增加로 大學은 確實히 大衆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Trow의 提言과 같이 大學生의 數가 15%를 넘을 때 이를 mass형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추세는 이에 비추어 mass형에 이미 들어서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各 大學의 규모로 볼 때 조출한 연구 분위기는 사라지고 소위 multiversity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

〈表-6〉은 4年制 大學의 규모 增加를 보이고 있는데, 1950年代는 1個大學에 약 700명의 學生이 있었는데 1960년에는 1,347名 1970년에는 2,161名이었고, 1982년에는 6,816名이 1個大學當 平均 學生數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表-6〉 4年制 大學의 學生규모 변화추세

	大學數	學生數	大學當學生平均
1950년	42	29,218	695.7
1960	75	101,041	1,347.2
1970	65	140,450	2,160.8
1982	97	661,125	6,815.7

이에따라 大學의 運營方式, 教育內容의 提示方法, 學生指導의 方法, 교무행정의 方法, 사무처리의 方法등 여러 面에서 새로운 經驗을 갖게

되었다.

Ⅲ. 맺는말

우리나라는 新教育制度로서 高等教育이 설치된 지 그 시일이 日淺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先進 外國의 大學이 經驗하였던 여러가지 變化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大學의 모습이 先進 外國과 別다름없는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大學理念定立에 소홀한 까닭으로 여러가지 社會的 葛藤을 겪고 있다. 그리고 朝鮮시대의 高等教育인 成均館 思想과 日帝下에서 도입되었던 官中心 教育이었던 京城帝國 大學의 思想, 그리고 해방후 平等思想과 大衆教育思想을 표방한 美國教育의 影響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올바른 方向정립에 있어 많은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現代의 高等教育은 선비양성만을 위한 教育이거나 상아탑적인 엘리트 중심 教育 그리고 大衆을 위한 教育의 어느 한가지 측면만으로는 올바른 方向이 제시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方向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의 세가지 측면의 影響을 力學的으로 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하고 알맞는 理念이 創出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大學의 현실을 볼 때 近來에 들어 大學의 數에 있어서나 學生數에 있어서 급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은 大衆化로 치달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社會變化的 趨勢로서 社會變化的 影響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現代社會는 平等思想의 발달과 教育機會均等思想의 보급으로 성취적 신분을 重視하게 되었고 학교교육은 社會적 성공의 큰 구실을 담당한다는 社會적 추세에 따라 上級 學校에 進學熱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大學의 확대 현상은 물론 實제적으로 大學의 質的 저하를 가져올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學力이 個人의 社會的 上向流動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는 한에서는 大學의 확대 現象 및 대중화 現象은 불가피한 일인 것이다.

大學의 확대 現象 및 大衆化 現象에서 파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質的 저하의 問題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大學이 指向하여야 할 몇가지

개선을 위한 代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政策面에서

(1) 大學의 문호는 최대한으로 開放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教育理念이 平等思想을 기저로 하고 있는 한, 원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教育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로 大學에 들어갈 수 있도록 教育機會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短期 高等教育機關 및 大學院의 육성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4年制 大學만이 정통의 大學이라는 觀念에서 우선 벗어나야 하고, 社會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보다 實用的인 教育은 短期 高等教育機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고 보다 차원 높은 專門性을 띤 것은 大學院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平生教育理念을 實踐하기 위한 노력이 大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大學이 地域社會에 문호를 開放해야 함은 물론, 정규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자도 정규대학과 동등한 資格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2. 目標設定의 면에서

과거의 大學은 특수계층만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대학교육은 支配者가 갖추어야 할 資質을 함양시키는데 그 目標이 있었다. 그러나 現代 社會에서는 平等理念의 보급에 따라 특정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大衆을 상대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大學教育은 보다 專門化되어야 하고 專門知識을 가지고 社會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社會的으로 有能한 일군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內容과 方法面에서

(1) 質的 向上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現代의 大學이 一般 大衆을 포용하지 않을 수 없게됨에 따라 質的 向上을 위한 노력도 大衆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과거와 같은 소수집단을 정예화시키기 위한 대학으로 환원될 것이 아니라 大衆을 포용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人間化를 위한 教育內容이 보다 크게 부각되어야 한다. 現代產業社會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의 하나로 인간상호작용보다 계약이나 技術的 유대가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大學은 이와 같은 社會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상호간의 유대를 증시하고 인간 존엄을 위한 教育이 大學教育 內容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3) 다양한 進路가 보장되어야 한다. 職業世界의 모습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한 機會를 효과있게 포착하는 능력과 자질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大學은 教育을 통해서 다양한 進路에의 접촉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4) 教育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教育의 效率性을 피하여야 한다. 教育媒體의 이용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論議되어오던 사항의 하나이다. 教授의 혼련부족과 教室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이의 효율적인 사용이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매체의 효율적인 이용이 없이는 大學教育의 質的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4. 運營의 면에서

(1) 私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教育이 大衆化될수록 私學의 運營은 어렵게된다. 물론 教育에 대한 效率性으로 봐서 私學의 신규설립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大學의 質的 저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國家에서는 균형과 質의 보장을 위해서 私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2) 學校運營에 있어서 經營의 合理化가 모색되어야 한다. 現代 大學의 特性중의 하나는 규모가 肥大化되어가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財政이나 教育課程의 運營에 있어서 合理化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크게 네가지 관점으로 代案을 모색하여 보았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大學 發展을 위한 새로운 方向 모색을 위하여 綜合的인 研究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